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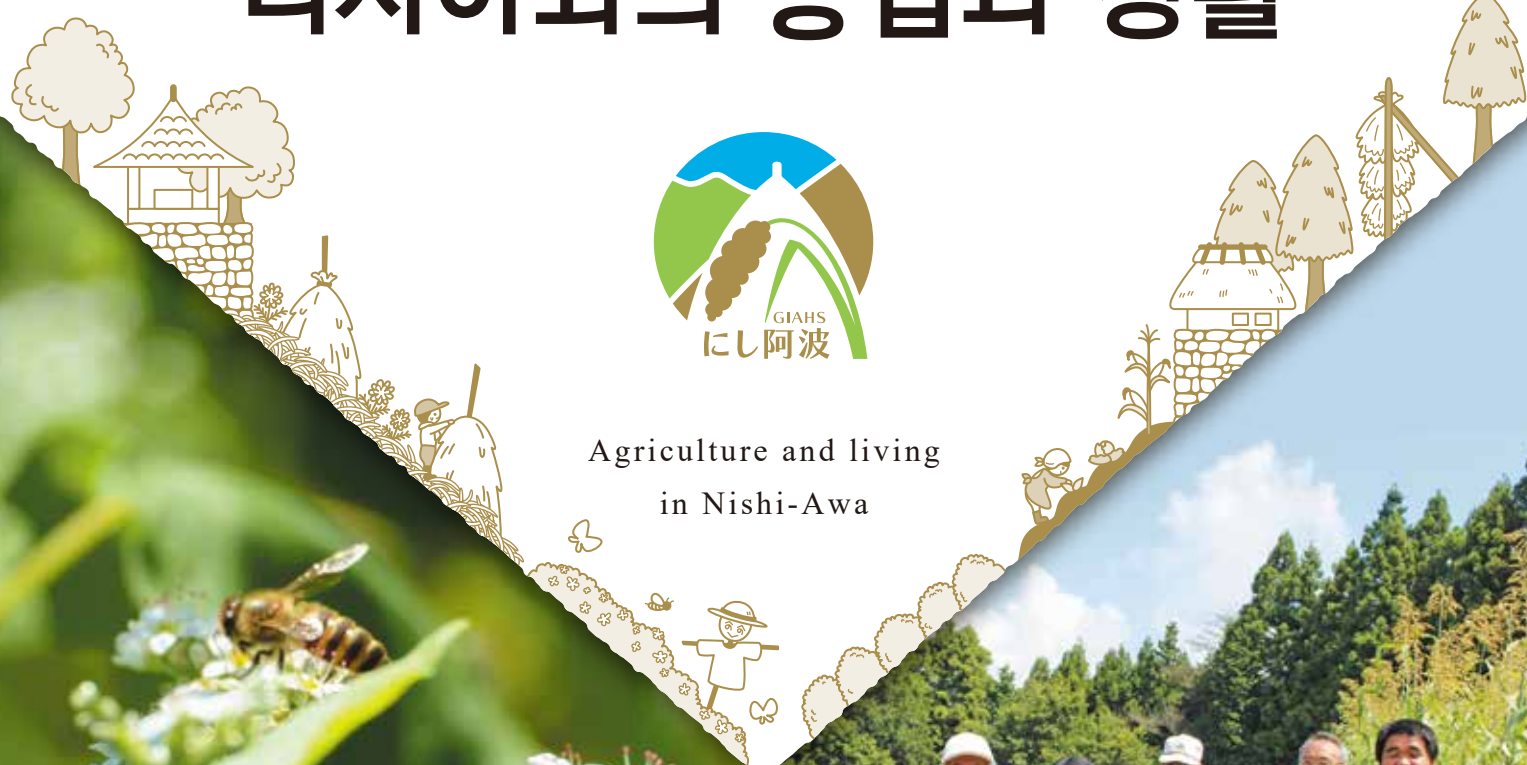


세계중요농업유산
 니시아와의 경사지 농경 시스템



세계가 인정한

‘니시아와의 농업과 생활’



Agriculture and living
 in Nishi-Awa



도쿠시마 쓰루기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추진협의회

니시아와의 경사지 농경 시스템이란?



경사지에서 생활하는 지혜

‘니시아와’라 불리는 도쿠시마현 서부의 미마시, 미요시시, 쓰루기초, 히가시미요시초에는 해발 100~900m의 산간 지역에 200여 개의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모두 험준한 경사지에 있으며 장소에 따라서는 경사 40도에 달합니다. 경사면을 이용하는 농업에서는 계단식 밭처럼 평평한 면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경사지 그대로 농경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지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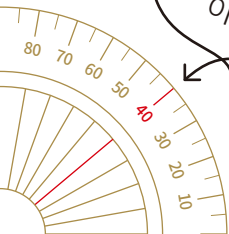
생명을 지키고 마을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렇게 400년 이상 계승되어온 산촌 경관과 식문화, 그리고 농경과 관련된 전통 행사 등 모든 것이 ‘경사지 농경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래를 향해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아 식량과 농업의 위기 상황이나 생태계 파괴 등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로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사의 미

험한 산들과 깊은 계곡이 만드는 사면에는 민가와 밭이 딱 붙어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어 세계에서 드문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경사 40도는 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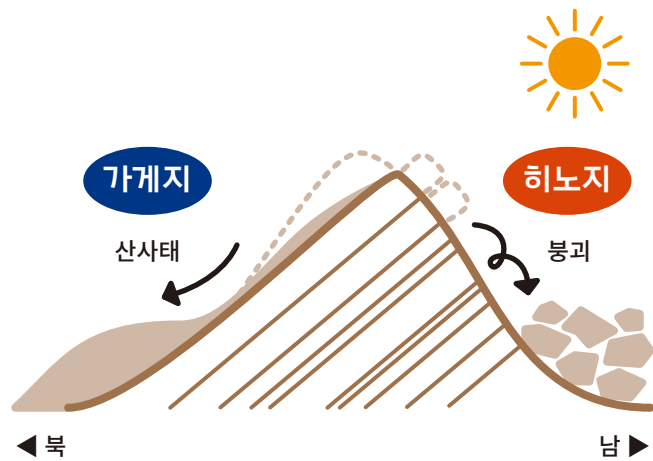
가게지(음지)와 히노지(양지)

'경사지 농경 시스템'은 경사지에서 탄생한 농업 구조입니다. 그러면 '니시아와'의 경사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니시아와' 일대는 거대한 플레이트(암반)가 부딪쳐서 생긴 일본 최대 규모의 단층대인 "중앙구조선"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활발한 단층 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융기나 변형에 의해 산이 형성됩니다.

북쪽 사면은 남쪽에서부터의 플레이트 이동으로 땅이 급격히 밀려 올라가 산악 지대가 형성되고 파쇄대(녹색 편암)라는 연약한 지질이었기 때문에 산사태가 많아 경사는 완만하지만 별이 잘 들지 않는 '가게지(음지)'가 되었고, 남쪽 사면은 붕괴로 인해 경사는 급하지만 별이 잘 드는 '히노지(양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붕괴한 자리에 사람이 정착하게 된 것이 취락의 기원이라고 전해집니다.

파쇄대는 지하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사태를 유발하고, 산사태 후에도 물이 풍부하게 남았습니다. 산 중턱이면서도 우수가 풍족했기 때문에 '니시아와'에서는 산 중턱에도 취락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5가지 포인트!



- 음식과 생활을 지탱**
식량 및 생계 보장에 기여할 것
- 생물과 식물의 보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 및 유전자원이 풍부할 것
- 전통과 자연을 수호**
전통적인 관습과 기술, 천연자원 등을 유지하고 있을 것
- 풍토에 뿌리내린 문화**
문화적 독자성이 풍토와 지역에 정착, 귀속되어 있을 것
-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진 경관**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룬 풍경을 지니고 있을 것

일본은 11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



세계에서는 21개국 57개 지역이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정 지역》

- 니가타현 사도시 '따오기와 공생하는 사도의 사토야마' (2011년 6월 인정)
-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 '노토의 사토야마와 사토우미' (2011년 6월 인정)
- 시즈오카현 가케가와 주변 지역 '시즈오카의 전통 차초지 농법' (2013년 5월 인정)
- 구마모토현 아소 지역 '아소의 초원 유지와 지속적인 농업' (2013년 5월 인정)
- 오이타현 구니사키반도 우사 지역 '상수리나무 숲과 저수지가 연계된 구니사키반도·우사의 농림수산순환' (2013년 5월 인정)
- 기후현 나가라강 상중류 유역 '나가라강 은어 시스템' (2015년 12월 인정)
- 와카야마현 미나베·다나베 지역 '미나베·다나베의 매화나무 시스템' (2015년 12월 인정)
- 미야자키현 다카치호고·시바야마 지역 '다카치호고·시바야마의 산간지 농림업 복합시스템' (2015년 12월 인정)
- 미야기현 오사키 지역 '지속 가능한 수전농업을 지탱하는 <오사키 경토>의 전통적 농수 관리 시스템' (2017년 11월 인정)
- 시즈오카현 고추냉이 재배지역 '시즈오카 물고추냉이 전통 재배 -발상지가 전하는 사람과 고추냉이의 역사-' (2018년 3월 인정)
- 도쿠시마현 니시아와 지역 '니시아와의 경사지 농경 시스템' (2018년 3월 인정)

5 가지 포인트가 살아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음식과 생활을 지탱

산의 토지에서 풍족한 식생활을 누리는 기술은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의 지혜가 된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잡곡 문화

도쿠시마현의 옛 이름인 '아와'의 어원이 화전에서 재배된 '조(일본어로 아와)'라고 할 만큼 이 땅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잡곡 문화입니다. 조몬 시대부터의 역사를 지녔다는 잡곡 생산은 벼농사의 전래로 인해 많은 토지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논에 적합한 토지가 적은 '니시아와'에서는 과거 화전 농업 등으로 재배되었고 지금도 매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급자족과 물물교환

경사지에서는 대규모 농업이 어려워 잡곡을 비롯한 소량 다품종을 재배하며 원칙적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히노지(양지)와 가게지(음지)에 따라 재배에 적합한 농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물물교환 등을 통해서 서로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산지 직판장 등에서 판매하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급경사지의 혜택을 맞보여 드림으로써 삶에 윤택함을 부여합니다.



'니시아와 브랜드' 특산품과 여행

배수가 원활한 급경사지에서는 고슈이모 감자(재래종 감자) 등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가공품을 비롯한 '니시아와 브랜드' 특산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가 레스토랑, 농가 민박 등을 통해 험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나 식문화를 경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냅니다.



생물과 식물의 보고

'니시아와'의 삶에는 유전자원을 지키는 지혜가 있다.



귀중한 유전자원을 전한다

'니시아와'의 잡곡은 동아프리카에서 식용되는 손가락조 등을 포함하여 40 계통에 이릅니다. 메밀이나 수수, 과수와 손수 만든 차, 전통 채소 등 다양한 재래 품종이 매일의 식생활을 지탱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잡곡과 채소의 원종에 가까운 종자를 각각의 농가에서 채종하여 보존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씨앗은 한 번 사라지면 부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유전자원을 계승하기 위해 이아잡곡생산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켜온 생물 다양성



역새를 거둬들이기 위한 '가야바(역새밭)'에는 희귀한 시코쿠 복수초를 비롯한 282종의 식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새매 등의 희귀종을 비롯한 28종의 조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41종의 곤충과 9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역새를 정기적으로 베어냄으로써 키가 작은 식물에도 햇빛이 잘 들게 되어 다양한 식물이 생육할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새들은 먹이를 발견하기 쉬워 귀중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사람의 손이 개입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보전된 것입니다.



전통과 자연을 수호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은 세계의 산촌 농업을 구할 지혜가 된다.

고에구로

'니시아와의 경사지 농경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는 '고에구로'입니다. 베어낸 역새를 원추형으로 쌓아 올려 건조시킨 후 잘게 썰어 밭에 내면 거름이 되고 토사 유실을 방지합니다. 잡초를 억제하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완화하며 건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야'는 역새나 띠 등을 가리키는 말로 과거 농촌에는 '가야바'로 불리는 채초지가 있어 가축의 먹이나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고 초가집 지붕에도 사용했습니다. '니시아와'에는 지금도 '가야바'가 있으며 농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만드는 전통 농기구

경사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른 역새를 잘게 썰어 밭에 깔고, 흙의 유실도 막습니다. 흘러내린 흙은 '사라에'라는 전통 농기구를 사용해 밑에서 위로 흙을 되돌려 놓는 '흙 올림'을 합니다. 밭에는 자갈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수어 흙을 만드는 독특한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농기구는 시판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사지의 각도에 맞는 농기구를 '가지야'라 불리는 마을의 대장장이가 맞춤 제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풍토에 뿌리내린 문화

'니시아와'의 전통문화는 산촌의 옛 모습과 농촌 문화를 남기는 지혜가 된다.



보존식 문화와 향토 요리

음식물이 한정된 산간 지역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을 햇볕에 말려 깊은 맛이 풍부한 보존 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주위에 마련된 사다리 모양의 '하데'를 이용하거나 처마 밑에 매달아서 말립니다. 쓰루기산에서 불어오는 겨울철 바람은 말린 식품을 만들기에 적합해 말린 고구마나 곱감 등 산촌 특산품을 만들어 냅니다.



감자, 고구마류의 채소를 저장하는 곳은 헛간 등의 바닥에 깊이 2m 정도로 판 구멍인데 '이모아나' 또는 '이모쓰보'라고 불립니다. 고슈이모 감자(재래종 감자)나 고구마를 보존하며 짚이나 왕겨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씨감자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메밀쌀죽이나 잡곡을 이용한 떡, 고슈이모 감자를 사용하는 '데코마와시' 등 소박한 향토 요리도 전해져 왔습니다.



전통행사

바쁜 농사일 가운데 오락의 기능으로서도 전통행사가 소중히 계승되어 왔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에 등재된 '니시아와의 신다이오도리'의 기원은 천 년 이상 전의 헤이안 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각지에서 자취를 감춘 '오이노코상' 등의 농업 제사도 아이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혹독한 노동 가운데 생겨난 노동가도 많이 전해졌는데 산과 계곡을 무대로 갈고 닦아진 목소리를 가진 사람 중에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야의 고히키부시(민요)의 전국 대회가 현지에서 개최될 정도입니다.

마을의 정보 교환 및 상호부조의 상징인 '사당'도 각 지구에 있으며 지금도 호마의식이나 다이시코(민속 행사), 염주 돌리기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진 경관

'니시아와'의 농경 생활 기술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모색하는 지혜가 된다.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경사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경사지에 펼쳐진 새하얀 메밀밭

니시아와의 품물시, 고에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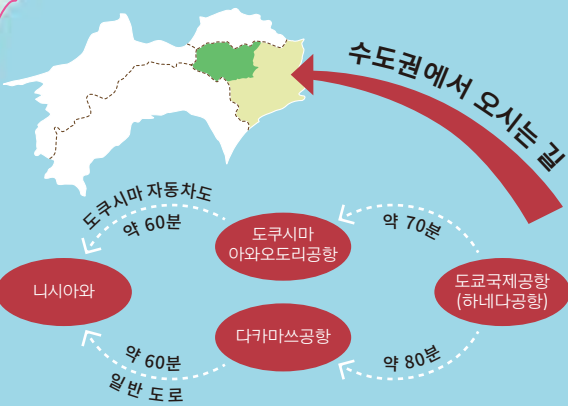
경사지에서 농경 생활을 하며 '니시아와'만의 경관이 생겨났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풍경입니다.

니시아와 MAP·ACCESS

'니시아와'란 도쿠시마현 서부에 위치하는 미마시, 미요시시, 쓰루기초, 히가시미요시초 등 2개 시(市) 2개 초(町)로 이루어진 지역을 가리킵니다. 도쿠시마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서일본에서 제2위의 고봉인 '쓰루기산'이 우뚝 솟아있고 일본 3대 아바레가와(자주 범람하는 강) 중 하나인 '요시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귀중한 농업 유산은 물론, 일본 3대 기이한 다리 중 하나인 국가중요문화재 '이야카즈라바시(넝쿨 다리)', 아름다운 메이지 시대의 풍경이 펼쳐지는 '우다쓰 거리' 등 일본의 다양한 옛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니시아와 .. (도쿠시마현 2개 시 2개 초)



【도쿠시마 쓰루기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추진협의회 사무국】
 쓰루기초 사무소 상공관광과(평일 8:30~17:15)
 (우)779-4101 도쿠시마현 미마쓰 쓰루기초 사다미쓰야자 히가시우라 1-3
 TEL: 0883-62-3111(대표) FAX: 0883-62-4944
 E-mail: syoukou@tsurugi.i-tokushima.jp
<https://giahs-tokushima.jp>

《미마시》
 (우)777-8577 도쿠시마현 미마시 아나부키초 아나부키야자 구탄치 5
 TEL: 0883-52-1212(대표) FAX: 0883-53-9919

《미요시시》
 (우)778-8501 도쿠시마현 미요시시 이케다초 신마치 1500-2
 TEL: 0883-72-7600(대표) FAX: 0883-72-7203

《히가시미요시초》
 (우)779-4795 도쿠시마현 미요시군 히가시미요시초 가모 3360
 TEL: 0883-82-6303(대표) FAX: 0883-76-1010(총무과)



니시아와로 가는 길	니시아와 주변 구경
다케카쓰공항, 도쿠시마공항, 고치공항에서 차로 약 60~70분이면 도쿠시마현 서부 니시아와 지역에 도착합니다. 열차로 가는 경우 목적 마을까지는 JR 아나부키역, 사다미쓰역, 아와이케다역, 오보케역 등에서 택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니시아와 지역의 산길은 구불구불하고 관광지 사이의 거리도 길니다. 마을을 몇 개 방문한다면 현지 이동에는 30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관광 택시가 좋습니다. 코스와 시간은 사전에 현지 택시 회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세계중요농업유산 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전통적인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가운데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전통적인 농림수산업과 그를 둘러싼 사람, 문화, 음식, 경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농림수산업 시스템’으로 시대와 환경 변화에 적응시키며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전합니다.

세계에서 21개국 57개 지역, 일본에서는 11개 지역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니시아와의 경사지 농경 시스템’은 주고쿠·시코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인정)



세계중요농업유산 니시아와의 경사지 농경 시스템 로고 마크 콘셉트

고대로부터 니시아와의 식량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해 온 잡곡을 중앙에 배치하고 경사지 농경 시스템을 상징하는 경사진 밭, 비료로 사용하는 고예구로(역새를 묶어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것),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법과 취락 형태의 생활이 앞으로도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습니다.